

다니엘의 책 - 번호 75

예언적 유사성: 이사야의 메시지에서 오늘날의 계시까지

Jeff Pippenger

2024-02-08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악한 지도자에게 육십오 년(7장 8절)으로 상징된 기별을 전할 때, 그는 기원전 742년에 '빨래하는 자의 발'과 '윗못 수로의 끝'에서 그렇게 한다. 기원전 742년은 1863년을 상징하는데, 예수께서는 항상 처음으로써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1863년의 반역은 다시 미국의 일요일 법을 상징하는데, 예수께서는 항상 어떤 것의 시작으로써 그 끝을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1863년은 법적으로 등록된 라오디게아 안식교회의 시작이었고, 그 교회는 일요일 법의 '큰 지진' 때에 버려져 황폐하게 된다. 국가가 법적으로 지배하는 법인(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의 반대)이, 바로 그 정부가 일곱째 날 예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때에, 어떻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계속 지킬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서 그분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첫 번째 성전 정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지도자들이 "그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음을 지적하셨지만, 마지막 성전 정결에서는 "그들의 집"이 그들에게 황폐하게 버려졌음을 지적하셨다. 고대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을 보여 준다. 그분은 재림운동의 시작에 밀려파 성전을 세우고 정결하게 하셨지만, 마지막 정결, 곧 14만 4천의 정결에서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운동은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버려지고, 그때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남겨진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대면할 때 세탁하는 자의 발 곁에 있다. 세탁하는 자의 발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셔서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언약의 사자가 이루시는 정결을 상징한다. 이 정결은 재림 운동의 시작에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에 다시 이루어진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홀연히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며,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겠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임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들을 금과 은같이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되리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고대의 해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1-4.

이사야는 아들의 표징과 함께 아하스를 만난다. 그 아들의 이름은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상징한다. 남은 자는 "돌아오는" 자들이다. 성전 정결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사야는 악한 왕 아하스를 만난다. 그 역사는 밀러주의 역사에서 1844년에 시작되어 1863년의 불순종으로 종결되었다. 마지막 때에 그 정결은 144,000인의 인침의 역사이다. 만일 밀러주의자들이 1844년 이후에 이어진 하나님께서 여신 섭리를 따랐다면, 그들은 그 일을 마쳤을 것이다.

"만일 재림교인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전개되는 섭리를 따라 연합하여 나아가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세상에 선포했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며, 주께서 그들의 수고와 함께 능력 있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그 사업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고 그들의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망 뒤에 이어진 의심과 불확실성의 기간 동안 많은 재림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였다. ...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은 방해를 받았고, 세상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만일 재림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위에 연합했다라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달라졌겠는가!" 복음전도, 695.

'하나님의 펼쳐지는 섭리 안에서 하나 되어 계속 나아가라'는 요구를 따르지 못한 탓에 그들은 1856년까지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졌고, 이어 1863년에 일어난 반역은 고대 이스라엘이 열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에 실패하여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고 방황했던 것으로 예증된 광야 방황의 시작을 알렸다.

이사야의 아들은 마지막 때의 최후 성전 정결 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전한다. 그들의 "돌아옴"은 예레미야로 예시되는데, 그는 그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십사만 사천 명은 실망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14만 4천에 속한 이들은 실망을 겪고 그들의 주님을 기다려 왔다. 그들은 밀러주의 역사에서 슬기로운 처녀들로 예표되어 왔으며, 시작과 끝의 역사 모두에서 한밤중의 외침 때 성령의 부어 주심 가운데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 한 민족이 된다.

악한 왕 아하스는 메시지를 듣기는 했으나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를 거절하는 유다의 지도부를 대표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걸려 넘어지고, 엎드러지며,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된다." 그들은 "신접한 자들과 중얼거리며 속삭이는 박수들에게 묻는" 자들이며, 데살로니가후서의 "강한 미혹"을 받아 영혼주의에 굴복하는 경험을 대표한다. 기원전 742년에 아하스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거절한 사건은 1863년, 밀러의 메시지가 거절된 때와 상응한다. 이사야는 밀러를 표상하며, 이사야와 밀러의 메시지는 모두 "일곱 때"에 근거해 있는데, 그 기준점은 이사야 7장 8절에 있다. 밀러의 아들(이사야의 아들)은 말세에 올 엘리야 운동을 대표한다.

아하스의 거부에 대한 선고에는, 말세에 교황권이 지배하는 현대 로마의 삼중 연합인 북방 왕에게 정복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였은즉,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께서 그들 위에 강의 물, 곧 세차고 많은 물,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몰아오시리니, 그가 모든 물길을 넘치고 모든 제방을 넘을 것이요, 그가 유다를 지나가며 넘쳐 흐르고 지나가서 목에까지 이르리라. 그의 펼친 날개가 네 땅의 넓이를 가득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아. 이사야 8:5-8.

이사야는 윗못 수로의 끝에서 악한 왕 아하스를 만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의 실로암 못과 윗못이 같은 못이었는지에 관해 성서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사야의 예언의 문맥은 모든 의심을 거두게 한다. 이사야가 아하스가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북방의 왕이 아하스에게

들이닥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아'는 신약의 '실로암'에 해당하는 구약의 이름이다.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신 곳은 실로암 못이었고, 사악한 아하스 왕은 치유받기를 거부하는 눈먼 라오디게아 지도부를 1863년에도, 그리고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에도 대표한다. "실로아"와 "실로암"은 둘 다 "보냄"을 뜻하며,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메시지가 보내졌고, 아들은 그것을 가브리엘과 거룩한 천사들에게 주어 이사야에게 전하게 하셨으며, 이사야는 하늘에서 "보내진" 그 메시지를 눈먼 라오디게아 지도자에게 전했다.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했던 위못의 수로는 성령의 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되는 곳을 상징하며, 이는 스가랴의 환상에 나오는 금관이나 야곱의 꿈의 사다리로도 상징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스가랴서 3장과 4장, 그리고 4장 12-14절에 나타나 있다: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하여 스스로 금기름을 흘려 내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엇이니이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이는 온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니라.'

주님은 자원이 풍성하시다. 그분에게는 어떤 수단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 부족, 세속성, 헛된 말, 그리고 우리의 대화 속에 드러나는 불신 때문에 우리 주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모여든다. 그리스도께서는 말과 인격에서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며 만인 중 으뜸이신 분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영혼이 허영으로 스스로를 높이려 만족할 때, 주의 영은 그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의 근시안적 시야는 그림자만 보되, 그 너머의 영광은 보지 못한다.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불고 있는데, 그것은 풀려나 온 지면을 휩쓸고 달리려는 성난 말로 묘사되며,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와 죽음을 몰고 간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문턱에서 잠들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둔감하고 냉랭하며 죽은 자와 같이 있을 것인가? 오, 우리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영과 숨결이 그분의 백성에게 불어넣어져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살게 되기를! 우리는 그 길이 좁고 문이 협착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넓음은 끝이 없다. 원고 발표집 제20권, 216, 217쪽.

"금빛 기름"은 위못에서 금으로 된 두 개의 관이라는 수로를 통해 흘러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로써, 그 두 관은 성경과 예언의 영, 또는 구약과 신약, 또는 율법과 선지자, 또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증인이다.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기름부음 받은 자들은, 한때 덮는 그룹으로서 사탄에게 주어졌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존재들을 통하여 주께서는 땅의 거민들과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신다. 금기름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등불이 흔들리다가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채워 주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이 거룩한 기름이 하나님의 영의 기별들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부어지지 않는다면, 악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전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모독을 받으신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 넣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려는 금 기름을 거절한다.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는 나가서 그를 맞으라'는 외침이 이를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못한 자들,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자신들이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 안에는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생애는 파선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탄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바 될 것이다. 금 관들을 통하여 금 기름이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난다." Review and Herald, July 20, 1897.

아하스가 거절했던 기별은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기별이었으며, 라오디게아의 지도자들이 1856년에 그들에게 '보내진' 라오디게아 기별을 받아들였다더라면 그 절정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 기별은 이어 점점 커져 큰 외침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역을 마치고 평안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건짐을 받았던 토한 것으로 되돌아갔다.

이사야와 아하스는 말라기 3장에서 언약의 사자가 이루시는, 세탁하는 자의 발으로 상징된 정결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스가랴의 환상에서 '기름'(메시지)이 부어지는 곳에 상징적으로 위치해 있으며, 말세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전한 메시지는 셋째 화에 속한 이슬람의 메시지이고, 일곱 우렛소리의 숨겨진 역사에 관한 메시지이며, '여덟째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메시지이고, 포도원의 메시지이며, '진리'의 메시지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마지막 때에 세탁하는 자의 발로 상징된 정결을 이룬다.

그것은 또한 "일곱 때"의 메시지였고 지금도 그러한데, 그것은 밀러의 기초석에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뀐다. 이는 그것이 처음 진리였으므로, 따라서 마지막 진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863년은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의 도래로 시작되어 1856년에 마침내 "일곱 때"의 빛에 이른 정결 과정의 종결을 알렸다. 1844년에 2,300년의 빛이 하나의 시작을 알렸고, 그것은 2,520년에 의해 표시된 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작과 끝에서의 라오디게아적 눈멀음은 두 환상의 관계를 보기를 거부한다. 1863년은 메시지의 봉인이 풀릴 때마다 늘 일어나는 정결 과정의 결론을 의미하며, 셋째 천사의 메시지는 1844년 10월 22일에 봉인이 풀렸다.

1844년에 봉인이 풀린 셋째 천사의 빛은 단일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잇 여사가 "셋째 천사의 전진하는 빛"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셋째 천사의 전진하는 빛은 1844년에 시작되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전진하지만, 그것이 처음 도래했을 때와 최종적으로 끝날 때에는 셋째 천사의 특정한 시험 시기가 있다. 그 시작과 끝의 그 시험 시기들은 또한 다니엘이 "지식의 증가"로 표현한 시험 과정, 곧 셋째 천사의 전진하는 빛을 나타낸다.

시험 과정의 시작은 1844년에 있었고, 진보하는 빛은 지식이 더해지면서 1856년에 결론에 이르렀다. 시험 기간의 시작의 빛과 끝의 빛은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두 환상이자, 재림주의의 기초와 중심 기둥을 나타낸다.

첫째 천사의 시험 기간은 1840년 8월 11일에 시작되어 1844년 4월 19일의 첫 번째 실망으로 끝났다. 이어서 둘째 천사의 시험 기간이 시작되어 1844년 10월 22일까지 계속되었다. 그 시점에 셋째 천사가 나타났고 셋째 천사의 시험 기간은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셋째 천사의 빛을 거절한 1863년까지 계속되었다.

밀러파 재림운동에서 셋째 천사의 시험 기간에는 시작과 끝이 있었으며, 그 시작과 끝은 같은 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셋째 천사의 점점 밝아지는 빛의 시작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나타남("mareh" 환상)의 빛이었다. 셋째 천사의 점점 밝아지는 빛의 끝은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나오는 성소와 군대의 유린("chazon" 환상)의 빛이었다. 그 두 환상은 예언적으로 서로 얽혀 있다.

그때 너는 일곱째 달 열흘에 희년의 나팔을 불게 하고, 속죄일에는 너희가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불게 하라. 레위기 25:9.

1844년 10월 22일 대속죄일에 불려야 했던 나팔은 희년 나팔로, 일곱 해의 거룩한 주기를 상징하며, 이는 합계 2,520일이 된다. 주께서는 옛 이스라엘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셨으나, 그들의 반역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 주께서는 현대 이스라엘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셨으나, 그들의 반역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 만일 현대 이스라엘이 셋째 천사의 더해 가는 빛에 순종했다라면, 그들은 세상을 경고했을 것이고 주께서는 백 년도 더 전에 돌아오셨을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려면 주님께서 밀러파 신자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필요가 있었고, 그 변화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불린다. 만약 재림주의가 셋째 천사의 전진하는 빛을 따랐다면, 희년의 나팔 소리는 끝까지 울려 퍼졌을 것이다. 이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마쳐지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나팔, 곧 희년의 나팔이자 또한 셋째 화의 나팔은 1844년 10월 22일에 울리기 시작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서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요한계시록 10:5-7.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시험하는 정결의 과정은 셋째 천사의 전진하는 빛이었으며, 다니엘서 8장 14절의 빛으로 시작해 다니엘서 8장 13절의 빛으로 끝났다. 그것은 14절의 대답으로 시작하여 13절의 질문으로 끝났다.

그 열아홉 해는 북과 남 사이의 내전 중에 역사적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의 경고 메시지가 전해진 사건으로 특징지어졌다. 그 열아홉 해는 북방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끝났다. 그 열아홉 해는 1844년의 셋째 천사의 도래에서 1863년의 반역에 이르기까지를 예표했다. 셋째 천사의 점점 밝아지는 빛은 이사야의 메시지로 표상되었다.

그 전진하는 빛을 거절한 일은 밀러파 운동의 끝을 가져왔고, 그 시험의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적 밀러파 운동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환되었다. 기원전 742년에 시작된

19년과 1844년에 시작된 19년은 모두 말세의 시험과 정결의 과정을 나타내며, 곧 셋째 천사의 전진하는 빛의 마지막 시험 기간이다.

그 마지막 시험 과정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것이다. 십사만 사천은 기다리고 돌아와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나는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나와 자녀들은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가 되었다. 이사야 8:16-18.

말세에 셋째 천사의 점점 더해지는 빛의 마지막 시험 기간은 처음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고 선포하셨을 때 시작되었다. 그 선포는 1844년 10월 22일, 일곱째 나팔이 일곱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주기의 끝에서 희년을 선포했을 때 일어났다. 일곱 해의 주기를 일곱 번 반복한 것은 문자 그대로 49년, 곧 2,520일이었다.

1989년은 14만 4천인의 운동에서 '끝의 때'를 가리키며, 1989년은 또한 1863년의 반란에서 시작된 126년의 종결을 가리킨다. 14만 4천인의 운동은 '끝의 때'에 '일곱 때'라는 상징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이는 126이 1,260의 십분의 일이고 그 1,260이 다시 2,520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표상하시며, 십사만 사천의 운동의 시작은 그 운동의 끝과 마찬가지로 "일곱 때"라는 상징으로 표시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이 마쳐질 때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삼 일 반"이 끝나는 때에 시작되었다. 셋째 화이기도 한 일곱째 나팔은 2023년 10월 7일에 두 번째 음을 울렸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그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대로" 마쳐지고 있다. 그 동일한 운동의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그 운동의 끝도 "일곱 때"라는 상징으로 표시된다.

1798년 '끝의 때'에 북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때'가 끝났고, 또 밀러주의자들의 운동이 끝날 무렵, '일곱 때'와 관련된 진리의 거절은 1863년 반역의 표지가 되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며, 첫째 천사의 운동(밀러주의자들)은 셋째 천사의 운동(십사만 사천)을 보여 준다. 두 운동 모두 '일곱 때'로 시작하여 '일곱 때'로 끝난다. 이런 건 꾸며낼 수 없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세상의 방종하고 사치스러운 원칙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설령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원칙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다방면의 가르침이 주어져야 한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로 교훈을 깨닫게 하겠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떼어진 자들이 아니냐. 이는 규례에 규례를 더하고, 규례에 규례를 더하며, 줄에 줄을 더하고, 줄에 줄을 더하여,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부모들은 인내로 자녀들 앞에 주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것을 늘 그들 앞에 두어야 한다. '그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혀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할 안식이요, 이것이 상쾌하게

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규례에 규례, 규례에 규례, 줄에 줄, 줄에 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였다.' 왜인가? 그들에게 임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주님은 이들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들이 그분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단하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든지 하게 하시며,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그 확실한 결과에 맡겨두신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복하며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심령이다. 기도에 탁월함을 주는 것은 그것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신다; 그들이 "나는 이 일을 행하도록 마음을 바치지 않겠다"고 말하면, 주께서는 이 성경 말씀 [이사야 28:13]이 성취될 때까지, 하늘의 지혜 없이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판단대로 계속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너희는 "내 판단과 조화되는 어느 지점까지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지만, 그다음에는 자기 생각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지기를 거부하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이지, "이것이 --의 의견이나 판단인가?"가 아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19.